



# 성장동력 인프라 구축 ‘사명’ ... “산업구조 개편 · 이공계 인재양성 역점 두겠다”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이 선출돼 본격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경상북도, 내무부,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대구직할시장, 체육청소년부 차관을 거친 관료 출신으로 이번이 3선이다. 또한 내무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으로 97년 한나라당 창당 때 입당해 깨끗하고 대쪽같은 이미지로 ‘이회창맨’으로 통한다. 15대 국회에서는 행자위, 16대 국회에서는 건교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는 이 위원장은 과묵하고 잘 나서지 않는 성품이지만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업무추진력이 뛰어나 IT산업 발전과 정부정책 조정자로 제 역할을 다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해봉 과기정위 위원장을 만났다.

글 권경희 기자 / 사진 이해성 기자



## 이해봉 국회의원

42년 대구 출생, 서울대 법대, 제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68), 경상북도 법무관, 보건사회국장, 내무부 새마을국장, 청와대 정부비서관, 대구시장, 체육청소년부 차관,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대구시지부 위원장, 16대 대선 한나라당 조직위원회 본부장, 한나라당 대구시당위원장, 15·16·17대 의원

“지난 30여년간의 공식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절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과 산업현장의 연결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민생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의원들과 현장 전문가, 학계의 견해를 구해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해봉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거중 조정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간을 갖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현안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을 주며 강조했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문제가 된 지 이미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공계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각 분야의 다양성에 대해 고려했고, 직업경로 제공 등 좀더 세련되고 정교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과기정위는 국가 경제의 주춧돌인 과학기술과 IT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며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17대 과기정위가 다른 상임위에 비해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해봉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과기정위원장으로 앞으로 각오와 다짐은.

“미국 예일대 케네디 교수는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에서 세계 강대국이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급성장하는 계기가 기술력의 우위라고 했다. 상대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훌륭한 인재양성에 있다고 본다.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위원회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과학기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선도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을 통해 보다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평등하게 유용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도록 하겠다.”

-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첨단 신기술이 부상하고 세계적으로 기술 경제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와 도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 시스템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모방기술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위해서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초과학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기초과학 연구가 크게 낙후돼 있다. 정보통신분야는 90년대 중반이후 본격적인 정보화의 추진으로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해킹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앞으로 과제는 해킹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인프라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신사업자 및 산·학·연이 공동으로 대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초기술에서 상용화기술 전 단계에 걸쳐 국내기술의 실질적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 앞으로 상임위 운영 구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은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주도하고 선도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분야로서 빠른 판단과 실행, 신속한 예산지원은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17대 전반기 과기정위는 정부부처와 여야는 물론 전문가그룹과 학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정기국회를 어떻게 끌어갈 계획인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경제 연구소는 대량생산(大量生産)의 시대는 가고, 대량사고(大量思考)의 시대가 오고 있으며, 정보화시

대의 경쟁력은 컨베이어 벨트가 아닌 사람의 두뇌에서 창출되며 국가경쟁력이 사회 구성원의 독창성과 유연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했다. 과기정위는 새로운 국가과학기술체제구축, 국가전략기술의 중점개발, 이공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식정보화사회 진입에 따른 21세기형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 우선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꼽는다면.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것이다. 그 차원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과학기술을 혁신할 수 있는 법과 제도와 예산이 정비, 제정돼야 한다고 본다. 정통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T839전략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법과 예산 제도적 측면에서 필요 한 것이 있다면 행정부와 국회와 산·학·연이 지혜와 힘을 합쳐서 올바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과기정위는 전통적으로 당색이나 지역색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반해 이 위원장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과학기술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지역 대표와 국민대표의 두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해줄 때는 지역 발전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라고 선출해 준 것이다.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을 펼친다고 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과기정위의 역할과 과제는 국가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을 혁신하는데 앞장서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 바람직한 정보통신 정책방향은.

“정보통신정책의 정책방향은 기술추격형 전략에서 기술 혁신형 전략으로 전환돼야 한다. 모방전략을 지양하고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한 국제경쟁기반 구축 및 국가기술 혁신 역량의 결집을 통해 선진국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핀란드와 아일랜드는 정보통신분야에 국가역량을 집중해 첨단기술 혁명을 이끌어 냈으로써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과 역할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국회에서 할 일은.

“지금까지 우리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데 의존해 왔고 이는 실제로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시대’로 갈 수 없고 본다. 국민소득 2만달러대의 국가에는 원천기술과 국가 브랜드가 있다. 휴대전화 생산대국인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에 휴대전화 원천기술을 제공하는 쉘컴사를 보유한 미국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다. 지금은 핵심 원천기술이 바로 산업화로 이어지는 시대다.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의 개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IT839 전략은 우리가 강점을 가진 첨단 인프라 및 통신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산업 등 취약분야를 보강한다면 IT산업이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활력소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처이기주의에서 초래되는 중복투자문제는 국가발전 전략의 효율화나 자원낭비의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 중복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간 또는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

- 정부가 하반기중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지난 번 정통부 업무보고 때 보니 과기정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 안정과 이용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이동전화 요금 인하보다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 이공계 기피문제가 아직 높은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이공계 기피현상은 훌륭한 우수 인재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국가와 사회가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가 과학기술 진흥과 첨단산업구조로 대전환 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국회, 민간기업체가 이공계 인력들의 국가기여도를 인정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과 정부와 기업이 인재를 갖고 원천기술연구와 불확실한 연구에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본다.”

- 과기정위 지원율이 역대 가장 높았다고 들었다. 이유는.

“17대 국회는 과거와 다르게 정책국회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와 달리 여·야 입장을 초월해 대승적인 입장에서 국가경제 성장동력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기가 좋았다고 생각된다.”

-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은 손오공의 복제술을 실현시켰고, 나노기술은 제비가 물어준 박씨에서 보석이 나오게 하는 흥부전 이야기에 도전하고 있다. 그만큼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과학기술진흥이 정부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투자와 더불어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등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